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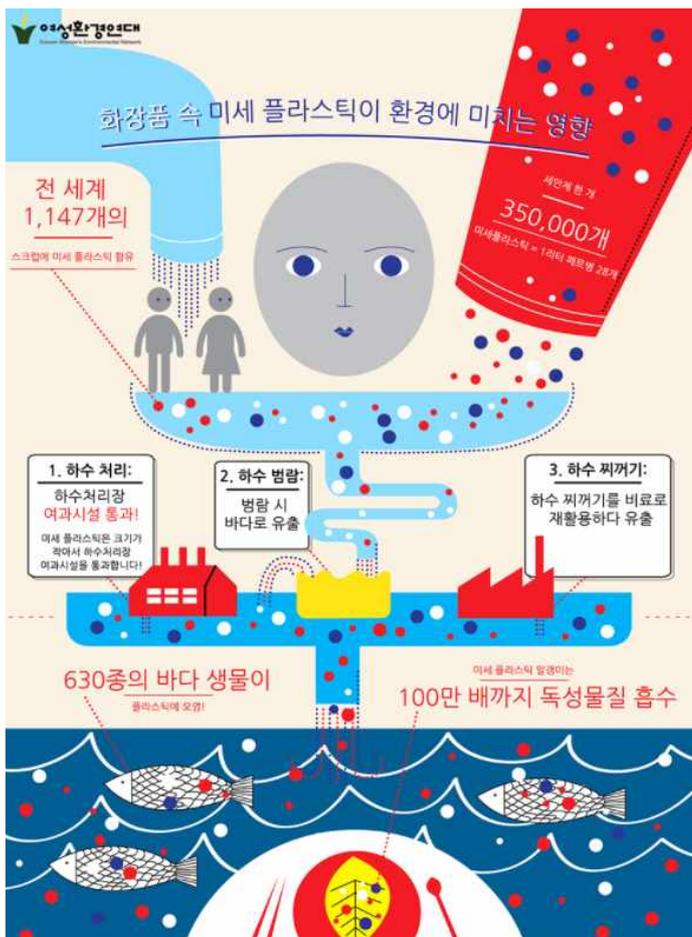
◎ 지도에 없는 플라스틱 섬

[관련 기사 클릭](#)

GPGP(Graet Plastic Garbage Patch)



플라스틱 섬의 정식 명칭은 GPGP(Great Plastic Garbage Patch)로 부릅니다. 이것을 한국어도 번역하면 '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 지대'이다. 1977년 발견된 이 쓰레기 섬은 두 개가 존재한다. 하나는 하와이 섬의 북쪽, 또 다른 하나는 일본과 하와이 사이에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과 GPGP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환경운동의 하나로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 운동을 한 미국의 전직 부통령 앨 고어가 이 쓰레기 섬의 제 1호 국민이 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15배 면적으로 쓰레기 섬을 처음 발견한 선장은 자신이 신대륙을 발견한 줄 알았다고 한다. 이 섬의 플라스틱 쓰레기의 개수는 약 1조 8000억 개, 무게는 8만톤이며, 초대형 여객기 500대와 비슷한 무게이다.

이 섬의 쓰레기를 다 치우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7만 8,000년! 현실적으로 쓰레기더미를 처리할 방법은 없다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고 지금 사는 인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이 쓰레기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부서져 먹이로 오인한 물고기가 먹게되고, 이 물고기는 우리의 식탁에 오른다.

◎ 미드웨이섬 프로젝트-쓰레기 섬으로부터의 메시지



플라스틱을 잔뜩 먹고 죽은 알바트로스

“미드웨이 섬에서 알바트로스의
주검들을 찍은 사진은 참혹했다.
뱃속에서 나온形形色색 원색의
쓰레기 앞에 인간은 할말을
잃어야 했다”



새끼에게 플라스틱을 먹이는 어미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는 식량을 구해 배를
잔뜩 채우면 섬으로 돌아와
새끼에게 음식을 게워 먹입니다.
바다가 제공하는 것을 믿고
새끼에게 먹일뿐인데
알바트로스는 플라스틱이 뭔지
모르고 저는 안다는게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던(Jordem, Chris/미국/1963~) 미드웨이섬 프로젝트-쓰레기 섬으로부터의 메시지(사진)

사진과 미술, 영화, 비디오아트 등을 통해 환경 문제를 보여주는 미국 환경사진가 크리스 조던은 태평양의 미드웨이섬을 8년간 오가며 바다새 알바트로스의 일생을 관찰했다. 그리고 새들이 플라스틱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 그 공포와 슬픔을 묵묵히 기록했다.

그렇게 만든 1시간 37분짜리 다큐멘터리 '알바트로스(Albatross)'(2018)는 지난해 런던 세계보건영화제에서 그에게 대상을 안겼다.

가장 높이, 멀리, 오래 나는 새로 알려진 알바트로스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하고 새끼에게 먹인다 쓰레기를 배에 가득 채운 채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 지도 선생님께서는 미리 영상을 보시고 적합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기 클릭](#)

◎ 앨리슨의 모험_쓰레기 섬



앨리슨의 모험(Alison's Adventures/미국 모험가 그룹/2012~) 쓰레기 섬



“나는 쓰레기섬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이유는 이곳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으며,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영화감독이자 모험가인 앨리슨 톨은 천국 같은 몰디브 섬으로 떠내려온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졌다. 앨리슨은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으로 떠내려오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다.

1년 뒤, 알리슨 톨은 사진작가 사라리, 다큐멘터리 감독 마크 티플과 함께 몰디브로 돌아가 텔레비전 리얼리티 쇼에는 등 장하지 않은 섬의 이면을 촬영했다. 몰디브 정부의 허가를 받아 몰디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섬인 *틸라푸쉬(Thilafushi)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이를 <앨리슨의 어드벤처>라는 짧은 영화로 만들었다.

* 몰디브의 말레 지역에 있는 쓰레기 섬